

## 파크골프는 즐거워

嚴 甲 道

“여보, 햇볕 좋을 때 빨리 치고 옵시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양치질을 끝낸 아내가 어느 사이 두꺼운 겨울 파크골프복으로 바뀌었고 독촉을 하고 있다. 요즈음 들어 잔소리 겸해 독촉이 부쩍 심하다. 여든 고개를 넘긴 아내가 올봄에 파크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연말이 되자 그 묘미를 조금 터득하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에 고무되어 저렇게 열을 올리고 있다.

인생의 황혼 길에 서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최소한이나마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열중할 수 있는 취미활동은 삶의 보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 열정이 고마워서, “그래, 갑시다.” 대답하고 서둘러 준비를 한 후 지하 주차장으로 아내와 함께 내려가 차를 타고 집 가까이 유등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달렸다.

유등천을 끼고 기다랗게 조성된 파크골프장, 멀리 보이는 산과 건물들, 유등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고가도로 등 언제 보아도 풍광이 좋고 시원하다, 잘 가꾸어진 잔디밭, 파크골프장으로 들어섰다. 겨울이라 잔디가 갈색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보라 치고, 혹한이라 파크골프 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눈도 다 녹고, 밝은 햇살에 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뜻한 날씨라서인지 많은 파크골프 애호 인들이 골프장을 메우고 있었다.

순번을 정해주는 공 올림대에 공이 가득하다. 끝자리에 아내의 공, 나의 공을 올려놓고 기다려야 했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마침 순서가 된 70대 중반의 부부가 합류할 두 사람을 찾기에 우리 부부가 희망했더니, 받아들여져 한팀이 되었다. 공칠 순서를 정하고 라운딩이 시작되었다.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멀리 깃발 한번 보고, 공 한번 보고, 마음을 비우고, 잔디에 스치듯이 골프채로 공을 친다. 중앙에 잘 맞으면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내가 의도한 곳으로 공은 굴러간다. 그때의 경쾌함은, 말로 표현이 어려울 만큼 기분이 좋다.

함께 파트너가 된 아주머니는 “늙어지면 이 운동밖에 없어요.” 하시면서 거의 매일 같이 와서 한두 시간씩 즐기고 간다면서 밝게 웃으신다. 사실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라 말하지 않는가.

파크골프장에서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정다운 친구가 된다. 걷고 또

걸으면서 육체적 운동을 하고, 대화로 이어지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노인들에게 파크골프는 노인의 4 고(苦) 중 건강, 무위, 고독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는 좋은 운동일 수밖에 없다.

나는 2년 전, 여든둘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실버타운인 사이언스 빌리지에 입주했다. 청주에서 50여 년 생활하면서 그동안 맺어온 각종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단절하면서 내 인생 황혼의 변화구를 던진 것이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이주로 인하여 수십 년간 즐기던 테니스를 못 하게 되어 아쉬움이 컸다.

그러던 중 연말쯤에 대전파크골프협회 부회장의 경력을 거친 L 교수가 중심이 되어 사이언스 빌리지 파크골프 동호회가 결성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파크골프를 잘 알지 못한 채 열결에 가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파크골프는 이른바 ‘미니 골프’로 불리는데 일반 골프보다 작은 공간에서 잔디를 밟으면서 야외에서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최근 수년간 노년층 사이에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파크골프는 입문이 쉽고, 복장과 장비를 준비하는 과정도 간단하고, 운동을 즐기기 위한 특별한 기술도 그리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파크골프는 파크골프 채와 볼만 준비하면 곧바로 라운딩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 사이언스 빌리지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 28명은 L 교수를 회장으로 모시고 출발했다. 조예가 깊은 회장님께서 직접 초보자 회원들을 파크골프장으로 안내하면서 협회 가입은 물론이고, 공을 치는 자세와 방법, 용어 해설, 경기 규칙, 에치켓 등 파크골프에 관한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라운딩을 시작했다.

작년 봄에는 파크골프에 능숙한 또 다른 L 교수가 입주하면서 우리 동호회 총무직을 맡아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활성화를 기했다. 올해에는 파크골프 전국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많은 우수 선수까지 입주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매월 한 번씩 갖는 월례 행사는 잔치 분위기로 친목을 다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늘은 우리 동호회 회원인 J 여사와 함께 3인 1조가 되어 갑천 제1파크골프장으로 왔다. 쌀쌀한 겨울 날씨임에도 순번을 기다려야 할 만큼 파크골프장은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윽고 차례가 되어 티잉그라운드에 서서 즐

거운 마음으로 공을 치고 걸어 나갔다.

갈대 풀숲 사이로, 맑고 향기로운 겨울바람 한 가닥이 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다. 청량한 기운이 온몸에 감겨든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후회 없이 살고, 날마다 멋진 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파크골프를 즐겼다. 저녁노을 고운 빛깔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두 내외는 인생 여든을 이렇게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익어 가고 있다.

파크골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여든 고개를 넘긴 아내와 함께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한국수필 2024년 3월호)

## ● 인 적 사 항

E-mail : akd586@hanmail.net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역임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충북중앙도서관장 극동정보대학 강사 충북수필문학회장 역임,  
충북수필문학상 한맥문학본상 청주예술상 매월당문학상 충북도문학상 홍조근정훈장 수상  
수필집 : 탐을 쌓아 올리는 삶, 행복한 자유인, 아름다운 황혼, 추억에도 색깔이 있다면 등  
주소: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22 사이언스 빌리지 609호( 도룡동)